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1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 최고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건강 챙기면서 특산품 홍보
하나된 저력 전국에 알린다

영광굴비골 마라톤클럽

영광의 대표적인 마라톤동호회 2개가 올해 하나로 뭉쳐 새롭게 태어난 ‘영광굴비골 마라톤클럽’(회장 김정섭·이하 ‘영굴마’)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통해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간 영광마라톤동호회와 옥당마라톤클럽으로 나뉘어 운영되다가 지난 1월15일 통합된 것이다. 둘이서 하나가 된 만큼 동호회 규모와 영향력이 배가 되어 예전보다 훨씬 활력 넘치는 동호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회가 이들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첫 무대이자 축제의 장인 만큼

출전자들의 결의 또한 남다르다.
김정섭 회장은 “호남의 대표적인 대회인 3·1절 마라톤에서 우리의 통합 소식을 전국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회원들도 하나된 ‘영굴마’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대회 앞두고 주2회 훈련

각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달리면서 건강을 찾는 목적 외에도 영광군의 이미지와 지역축제 등을 전국에 알리는 달리기 홍보사절단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

은 전국 대회 출전 때마다 플랑카드 등을 활용해 특산품과 축제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영굴마’ 회원 수는 인터넷 회원 등을 포함해 총 3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통합의 여세를 몰아 더욱 회원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영굴마’의 기량은 전국 여느 동호회에 뒤지지 않는다.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전해 보고 싶은 ‘폴코스 100회 완주 훈장’을 권형수씨가 차고 있다. 또 권형수씨를 포함해 최일범·유병순씨는 서브-3(폴코스를 3시간 내에 완주)의 기록도 갖고 있다. 이들은 100km 이상의 울트라 대회도 참가해 끝까지 달린 ‘철인’들이



올해 영광-옥당 2개의 동호회가 하나로 뭉친 영광굴비골마라톤클럽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축제와 군 이미지 홍보에도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기도 하다.
‘영굴마’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 번

울트라 참가 ‘철인’ 3명 출전도

씩 함께 달린다. 수요일엔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 모여 웨이트트레이닝과 가

벼운 달리기로 몸을 푼다.
토요일엔 장거리 주행이다. 먼저 22km

코스는 백수생활체육공원-모래미해수욕장-은행나무가든-대신삼거리까지 이다. 25km는 불갑수변공원을 출발해 삼학점문소-요나-내산서원-불갑사 입구를 거쳐 다시 불갑수변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35km 코스는 영광여중을 출발해 곧을재-

대마소재지-묘량소재지-밀재-신천삼거리-갈복삼거리-해룡고를 거쳐 영광여중으로 돌아온다. 이외에도 산악훈련도 가끔씩 실시한다.

하나로 뭉친 ‘영굴마’가 이번 대회를 통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 힘찬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윤석민 등 日 팬들에 ‘상종가’
연습 경기 보러 학생들 몰려

‘일본에서도 통하는 예이스 윤석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을 통해 ‘국민투수’로 발돋움한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일본에서도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다.
6일 윤석민이 일본 규슈지역의 스포츠신문인 ‘니시니폰스포츠’ 1면에 등장했다. 이 신문에는 오는 18일 KIA와 연습경기를 갖게 될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의 내야수 가와사키가 윤석민에게 도전장을 냈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윤석민의 사진과 상세한 프로필도 함께 게재됐다.

가와사키는 기사를 통해 “지난 WBC 때 일본팀을 매우 힘들게 했던 윤석민을 상대로 지난 가을부터 연습해온 새로운 타법의 완성도를 시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기사를 접한 윤석민은 “베이징 올림픽과 WBC 때 만난 선수라 기억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좋은 승부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범현 감독은 18일 예정대로 윤석민을 등판시켜 두 사람의 대결을 성사시킬 계획이다. 2008년까지 소프트뱅크에서 코치생활을 했던 스키모토 투수코치도 “가와사키도 좋은 선수이지만 윤석민은 KIA 최고의 투수다. 18일 등판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야구 꿈나무들 사이에도 윤석민은 인기스타다. 지난 5일 KIA의 전지훈련지인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 구장에 휴가고 야구부 학생들이 찾았다.(사진)
학생들에게 메이저리거 출신의 ‘빅초이’와 WBC 일본과의 대결에서 중원무진했던 이용규는 익숙한 얼굴. 베네수엘라의 막강타선을 잠재우고 WBC 준결승전 승리투수가 됐던 윤석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윤석민’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발음한 학생들은 “윤석민이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선수냐?”며 취재진에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윤석민의 피칭을 보기 위해 불펜에도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윤석민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한 학생들은 “공이 빠르고, 위력적이다”며 찬사를 보였다.
야구 후배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윤석민은 이날 패조의 컨디션으로 130개의 공을 던지며 시즌 준비에 속도를 냈다. /wool@kwangju.co.kr



KIA의 최희섭이 7일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 구장에서 열린 자체 흥백전에서 흥팀의 4번타자로 나와 2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들 생존 경쟁 ‘스타트’



KIA 日 전훈련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기자



나지완 자체 흥백전서 투런포...주전 예약
조감독 불펜서 투수 컨디션 직접 확인

호랑이들의 영역싸움이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7일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기하마 구장에서 전지훈련 첫 자체흥백전을 가졌다. 6회까지 진행된 경기는 나지완의 투런포를 앞세운 흥팀의 5-3 승리로 끝났다. 타선의 움직임이 좋았다. 흥팀 3번 나지완이 1회초 1사 1루에서 백팀 선발 박경태의 초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기는 큼직한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나지완의 투런포로 기선을 제압한 흥팀은 최희섭과 김상훈의 연속안타로 1회에만 3점을 뽑아냈다. 3회에도 안타를 기록한 최희섭은 5회 1사 1·3루 상황에서는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탤다. 김상

훈도 5회 우월 2루타를 기록하는 등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다. 백팀 타선에서는 채종범의 활약이 돋보였다. 0-3으로 뒤지던 1회말 1사 2루에서 2루타로 1타점을 올린 채종범은 6회에도 좌전 안타를 기록하며 부상병 탈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마운드 점검도 이뤄졌다. 조범현 감독은 전지훈련을 통해 눈여겨본 사이드 전태현, 좌완 박경태를 각각 흥팀과 백팀의 선발로 내세웠다. 2일 동안 9타자를 상대한 전태현은 1회안타 1사사구 1실점을 기록했다. 좌구 최고구속은 137km. 서클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커브, 싱커도 선보였다.

스키모토 투수코치로부터 좌완 기대주로 평가 받은 박경태는 나지완의 홈런 공세에 흔들리며 1회 3실점 했지만, 2회를 삼자범퇴로 마무리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코칭스태프로부터 전지훈련 최고의 모범생으로 꼽힌 이동현도 백팀 두 번째 투수로 나섰다. 이동현은 2이닝동안 1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무실점으로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좌구 최고구속은 142km를 기록했다. 흥백전이 시작되면서 KIA의 주전경쟁체제가 본격화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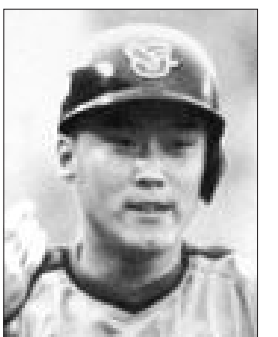
이날 조범현 감독은 오전 훈련에 앞서 선수단 미팅을 소집해 빈틈없는 훈련과 플레이를 당부하는 등 선수단에 긴장감을 높였다. 경기 도중 직접 불펜으로 나와 투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등 전력구상을 위한 조범현 감독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한편 KIA는 9일 오쿠라기하마 구장에서 다시 한 번 자체 흥백전을 치른 뒤 13일 사이프 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두산과 연습경기를 갖는다. 18일에는 이병호가 소속된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와의 경기를 통해 실전감각 익히게 된다.

20일부터는 가고시마로 이동해 롯데, 히어로즈와 연습경기를 갖고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wool@kwangju.co.kr

전 롯데 선수 임수혁, 끝내 사망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고 9년 넘게 투병해 온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 임수혁이 7일 오전 8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1세.



강동구 병일동 부친의 집 근처 요양원에 있던 임수혁은 이를 전 감기 증세로 강동 성심 병원으로 옮겼고 이날 오전 심장마비가 오면서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빈소는 강동구 상일동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장례식장 11호실(전화:02-440-8911)에 마련됐다. 발인은 9일 오전. 유족으로는 아내 김영주(40)씨를 비롯해 고등학교 입학 앞둔 아들 임세현(16), 중학교 2학년 딸 임연진(14)양이 있다.

전도유망한 포수였던 임수혁은 지난 2000년 4월18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2루에 서 있다가 의식불명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심폐소생이 늦었던 탓에 임수혁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심장 부정맥에 의한 발작 증세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10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해왔다. /연합뉴스

KIA 광주경기 의사 상주

■ 국내 프로 스포츠 응급 의료 실태

전 롯데선수 임수혁의 사망으로 국내 프로 스포츠 구단의 응급실태를 되돌아 보면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의 완벽한 응급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의사가 상주하는 경우는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를 제외하곤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대부분 구단이 1급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의사가 상주해야만 응급 의료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IA는 광주 무등경기장 인근 한국병원 당직의사가 출동할 때마다 경기장에 상주,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KIA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선수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러한 점에서 KIA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구장의 경우 응급 구호단은 휴대용 산소통, 심전도 모니터 등 호흡관상시 처치할 수 있는 기본 장비를 갖추고 있다. 두산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지난 시즌 도중 구단 직원들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